CASE REPORT

pISSN 1226-6396, eISSN 2234-4942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21;32(2):129-140
https://doi.org/10.7231/jon.2021.32.2.129

JON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단기 심신일여 부부치료를 통한 관계 개선 증례 보고

김병학*, 임정화*,†, 김보경*,†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

Psychotherapy for Couples based one Short-Term Body and Mind Korean Medicine: A Case Report

Bung-Hak Kim*, Jung-Hwa Lim*,†, Bo-Kyung Kim*,†

*Department of Oriental Neuropsychiatry, School of Korean Medicine i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Received: June 6, 2021
Revised: June 25, 2021
Accepted: July 2, 2021

Correspondence to
Bo-Kyung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 Korea.
Tel: +82-55-360-5965
Fax: +82-55-360-5890
E-mail: npjolie@hanmail.net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Psychotherapy in Korean Medicine is characterized not only by management of mental issues, but also a holistic perspective of the mind and body, which includes physical treatment. In this case report, we describe the efficacy of Korean psychotherapy for couples with physical symptoms of heartache, emotional tension and marital relationships by addressing the challenges at the Mind and Body levels. For the physical treatment of the couple, the wife was treated with a *Bunshimgi-Eum* and the husband was administered a Cheonwangbosimdan, combined with a psychiatric interview based on Korean Medicine. It involves listening to the couple's story, YiJungBeongi therapy, understanding and learning about vases and defense mechanisms, self-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of the husband through self-understanding and expansion, and husband's understanding of the wife's position, self-interpretation and acceptance. Based on counseling, the couple's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xpansion for self-growth,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couple's challenges and relationship improvemen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are presented. In response, we hope that the evidence based on Korean Psychotherapy supporting the counseling for couples will continue to accumulate. We would like to report and share a few opinions.

Key Words: Case report, Couple therapy, Mind and body Korean medicine psychotherapy.

Copyright © 2021 by The Korean Society of Oriental Neuropsychiatr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2020년 우리나라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2010년의 32만 6천 건에 비해 약 52%정도 감소하였고, 이혼 건수는 약 10만 7천 건으로 2010년의 11만 7천 건에 비해 약 9% 감소하였으나, 낮아진 혼인건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이혼 건수를 보이고 있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 49.4세, 여자 46.0세로 2010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사회 기본 단위인 가정의 해체는 2세의 양육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 문제적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어, 가정의 기본 단위인 부부소통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1].

부부치료는 부부개개인보다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치료대상으로 보고, 치료적 접촉을 통해 부부관계를 재구성하고 문제해결 접근 방식을 통해 장애를 해소하며, 비적응적 행동양상을 변화시키며, 필요시 정신역동을 다루기도 하여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다. 가족치료 혹은 가족상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2].

정 등[3]은 부부치료 모델비교연구에서 행동부부치료, 인지행동 부부치료, 정신역동 부부치료, 가족체계 부부치료를 정리 소개하였는데, 이들은 외현적인 행동변화 혹은 인지 정서와 같은 내적 경험을 강조하거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의 변화를 위하여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박 등[4]은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도 하였고, 강[5,6]은 부부치료 증례와 임상장면에서 한의학적 부부치료의 신형일체적 접근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한의정신요법은 소문 이정변기론(素門 移精變氣論)에서부터 기인된 이정변기요법을 비롯하여 지언고론요법, 허심합도, 이도요병, 오지상승위치법, 경자평지요법 등과 함께 심신일여(心身一如), 형신합일(形神合一)의 관점으로 몸과 정신이 치료의 대상으로 함께 중요시 되는 특징이 있다. 중요한 방어기제 중 하나인 정신의 신체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내적 정서변화와, 외적 행동발현을 내상과 칠정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증상을 현상학적 측면으로 이해하였다[7-9].

저자는 가슴 답답함을 주증으로 내원하여, 시집과 남편과의 정서적 긴장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의 화병으로 진단된 부인(A)과, 남편(B)를 같이 치료할 것을 권유하여, 주 1회 침, 뜸, 한약 치료 및 단기간 심신일여적 부부치료를 통하여 부부관계 회복의 좋은 결과를 보인 한 부부상담의 증례를 고찰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증례

1. 연구의 허가

본 연구는 20**년에 ○○○ 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에 내원한 내담자 부인(A)와 남편(B)의 한의면담을 포함한 치료 과정을 통한 부부관계 회복의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는 ○○○ 한방병원의 IRB 승인(PNUKHIRB_E2021002)을 받은 후, IRB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2. 연구 대상자 기본 정보

1) 부인(A, 35세)

(1) 주소증: 가슴답답함, 불안함

(2) 부증상: 소화불량, 체중감소, 현훈, 두통, 전신 무력감(탈력감), 피로감, 불안감, 분노, 경계, 수면불량, 전신 통증 등

(3) 발병일: 한달 앞으로 다가온 20**년 명절을 앞두고 심화됨.

(4) 현병력

결혼 이후 시부모님, 시숙의 거친 언행으로 시댁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불편하였으며, 작년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작년과 지난 명절 시댁을 방문하지 않았음. 이번 명절에도 시댁에 가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상식선에서 행동하라는 등 지속적으로 시집을 방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 불편하여 내원하였음.

(5) 과거력: B형 간염 보균 상태

(6) 개인력 및 부부생활에 대한 면담

A씨는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며, 20대 후반에 5살 연상의 남편(B)와 연애결혼 하였고, 유아 2명을 양육하고 있음. 직장생활은 승진을 위한 커리어 관리를 잘 진행하고 있음.

A씨의 친정어머니는 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으며, 맏딸로서의 책임감이 강하여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을 돌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며 살아옴. 남동생은 결혼하였으나 결혼생활이 원만치 못하고 과음하는 습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도 몇 건 있었으며, 현재 A씨의 집 근처, 친정집에서 친정부친과 함께 살고 있어, A씨가 부친과 남동생, 조카 등을 돌보기 위하여 자주 친정을 방문하고 있음.

남편(B)은 자주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마시기 시작하면 과다하게 마시고, 노상, 베란다 혹은 방에서 방뇨하고, 이에 대해 화내는 부인(A)를 때린 적이 있으나 기억을 하지 못하며, 다음 날 사과하는 일이 있었음. 부인은 남편이 알콜중독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결혼할 때 남편의 큰 액수의 부채를 해결하여 주었으며, 신혼집도 본인이 마련하였기 때문에 혼수는 간단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미안해 하지 않고, 혼수에 대해 타박한 시집 식구들에 대해 느낀 분노와 관련된 내용을 부인은 무표정하게 감정이 억제된 상태로 이야기함.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의 부재로 외로움과 쓸쓸함을 많이 느껴 시어머니에게 친근감을 많이 느꼈으나, 특별히 종교에 대한 편향은 없어도, 일상 대소사에 점을 보고 굿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적응이 잘 되지 않았음. 남편(B)의 음주와 주사에 관하여 감정을 호소하면, 공감대신 화를 내거나 참으라고만 하여 거리를 느꼈음. 결혼 생활 동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댁의 요구를 거절하면, “할 말 다 한다”, “일을 키운다”, “시집을 무시한다”, “못 배웠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시아버지, 시숙에게 놀라고 무서웠음. 동서(시숙의 부인) 역시 유사한 상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함.

남편(B)는 시댁 식구들의 부조리한 행동에 대해 아내의 보호막이 되기는 커녕, 환자에게 “이상하다”, “배운 것이 없다”고 공격하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고 슬펐음.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고, 남편(B)이 아이들에게는 잘하므로 이혼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음. 남편(B)에 대한 감정이 많이 나빠져 있고, 시집 식구들에 대해 타인을 호칭하듯 하였으며, 심리적 분리를 추정할 수 있었음.

(7) 말하는 법: 면담 시 때때로 울거나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함. 흥분된 어조였으며, 여러 상황에 관하여 충실히 기술하였고, 목소리가 분명하고, 감정적 표현이 많으며, 감정표현과 말의 내용이 부자연스럽지 않음.

(8) 진단: 화병 U222, emotional status R458

2) 남편(B, 41세)

(1) 주소증: 아내와의 정서적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안구충혈, 안면 홍조

(2) 부증상: 식사, 소화, 대소변, 수면 상태 모두 별무 이상

(3) 발병일: 최근 지속적으로 주소증 인지

(4) 현병력: 일상생활 큰 무리 없이 수행 중이나, 결혼생활이 원활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기 증상으로 치료받은 이력 없음.

(5) 과거력: 돌발적인 시력저하, 수년 전 우측 안구 외사시, 안과 검진상 비특이적 소견 확인. 비특이적 관절통이 다소 외 직장 건강검진 상 특이 소견 없었음.

(6) 개인력

남편(B)은 3남 1녀 중 차남으로 고등 교육직에 종사 중. 부인과 연애 결혼하여 자녀(딸 7세, 아들 4세) 두 명 육아 중. 커리어 관리를 위하여 부인과, 지방 도시 근무 중이며, 근교 도시의 본가에는 1년에 2~3번 정도 방문한다고 하였음.

지난 명절에는 남편(B)의 형이 부인(A)에게 화가 나서 주먹을 들었던 사고가 있었으니 부인(A)이 시댁에 가지 않은 것을 이해했지만, 다가 올 명절에는 그래도 자식이고 며느리니까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음. 부인(A)이 시댁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인(A)에게 시댁에 가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인(A)가 못 가겠다고만 하였다고 함. 시댁에 가는 것이 일 년에 며칠 된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음. 부인(A)는 같은 도시 가까이 사는 처가에는 특별할 일 없는 평상시에도 자주 왕래하는데, 남편(B)도 좋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으며, 계속 이런 식이면 남편(B)도 처가와 왕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

남편(B)는 스스로 술을 종종 마시고 몇 번 실수를 했지만, 술 외에는 특별히 스트레스를 풀만한 방법을 모른다고 하였으며, 다른 남자들도 술을 마시면 그 정도의 실수는 하고 사는데 그것이 이렇게 난리를 칠 일인가라고 하였음. 남편(B)는 스스로 성격이 특별히 모난 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도 두루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하였음. 부인(A)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사에 관하여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데,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였음.

(7) 말하는 법

남편(B)는 면담 시 겉으로 조용하게 말하고, 감정적 표현은 많지 않음. 말의 속도가 빠른 편이며, 먼 산을 보며 이야기 하였음. 남편(B)가 말한 내용에서 부인(A)의 행동에 대하

여 화가 나고 참기 싫다는 뜻이 관찰됨.

(8) 진단: 심화상염, 심신불교, 부부갈등으로 인한 배우자 상담

3) 초진 시의 검사결과

초진 시 부인(A), 남편(B) 모두 체성분 분석, 맥전도, 심기도, 수양명 경락기능 검사, 가속도 맥파검사를 수행하였다. 검사 결과 부인은 체성분 검사에서 155 cm/45 kg, BMI 18.8, 전체적 골격근양과 내장지방이 많이 부족하게 나타났으며, 맥전도에서 심맥 항진, 신맥, 폐맥저하가 관찰되었다.

남편(B)는 체성분 검사에서 체중, 골격근, 체성분 구성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고, 맥전도에서 폐맥저하 관찰되었으며, 기타 검사 결과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부부의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2).

4) 내담자 A, B의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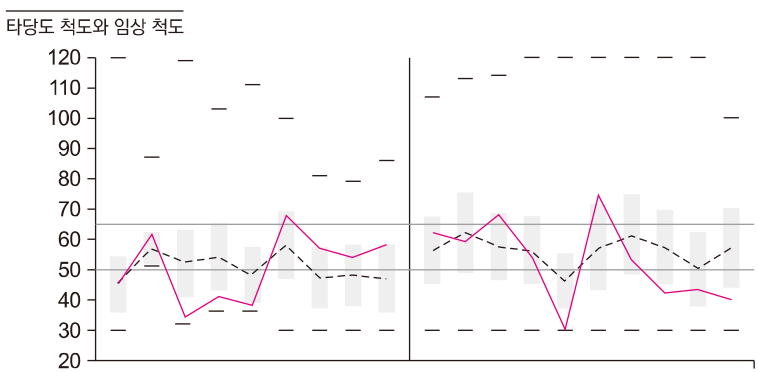
면담 진행 중 그림 참조(Fig. 3. 부부상담2 과제-가족의 정의와 경계, Fig. 4. 가족 서약서).

3. 내담자의 치료 계획, 경과와 결과

1) 심신일여 부부치료의 계획과 목표

(1) 초진 시 부부의 심리적, 신체적 문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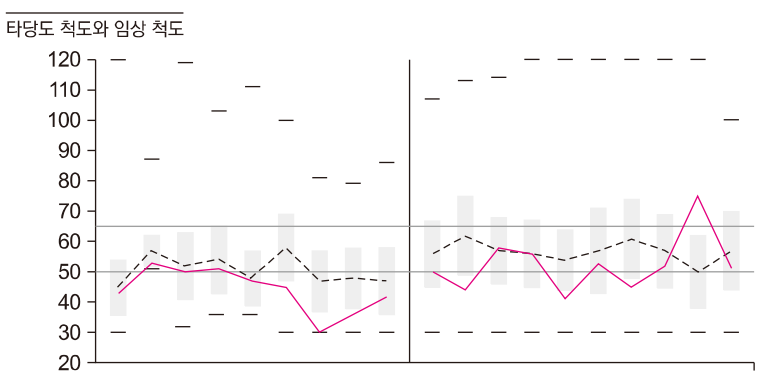
(2) 신체적 증상 변증 치료하기



척도	VRIN	TRIN	F	F (B)	F (P)	FBS	L	K	S	Hs +.5 K	O	Hy	Pd +.4 K	Mf	Ps	Pt +1 K	Sc +1 K	Ma +.2 K	Si
원점수	8	6	1	3	1	26	8	17	30	15	33	37	23	45	21	19	13	17	25
전체규준 T	**45**	**62F**	**34**	**41**	**35**	**68**	**57**	**54**	**58**	**62**	**59**	**65**	**54**	**30**	**75**	**53**	**42**	**43**	**40**

* Mf 척도와 T점수는 성별규준에 의한 것임.

Fig. 1. MMPI-2 of wife (A).



척도	VRIN	TRIN	F	F (B)	F (P)	FBS	L	K	S	Hs +.5 K	D	Hy	Pd +.4 K	Mf	Ps	Pt +1 K	Sc +1 K	Ma +.2 K	Si
원점수	7	8	12	9	4	14	0	8	19	16	24	22	28	22	14	23	32	31	33
전체규준 T	**43**	**53F**	**50**	**51**	**47**	**45**	**30**	**36**	**42**	**50**	**44**	**58**	**56**	**41**	**53**	**45**	**52**	**75**	**51**

* Mf 척도와 T점수는 성별규준에 의한 것임.

Fig. 2. MMPI-2 of husband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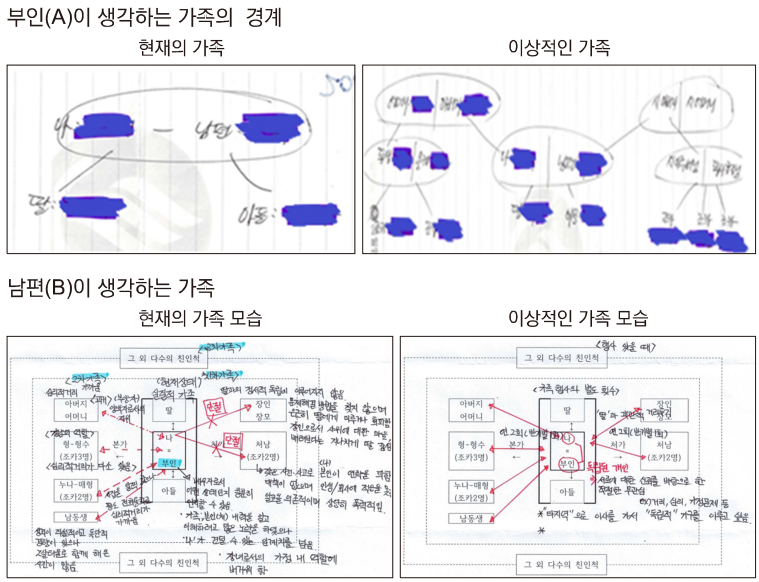


Fig. 3. Couple therapy 2 – homework, family bounda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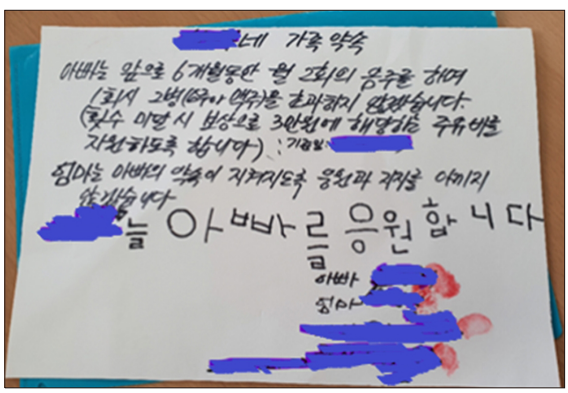


Fig. 4. The family pledge.

(3) 부부의 개인적 특성 이해하기
(4) 가정의 경계선 인지하기
(5) 자아의 이해와 성장(扶正의 방법)
(6) 자아의 성장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7) 화해와 가족 목표 설정

2) 방문별 치료와 심신일여 부부치료 내용

진료는 약 2개월 여 기간 동안, 초진(검사 시행), 재진(검사결과 설명 및 치료계획), 이후 주 1회의 부부상담 4회, 부인 침구치료 1회, 35일 후 마지막 부부상담 1회로 종료함(Table 1).

(1) 첫 번째 방문(초진)

초진 방문에서 부인(A), 남편(B)의 개인력을 청취하고, 각각 다면적 인성검사, 맥전도검사를 비롯한 체성분 검사, 수양명경락기능검사, 가속도맥파검사 검사, 심기도검사 실시하였음.

부인(A)는 감슴답답함 등의 신체증상과 남편의 음주 관련 실수담, 시댁과의 갈등, 시댁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용적 청취를 통하여 해울하는 이정변기요법을 수행함.

남편(B)에게서 음주 습관 및 음주와 관련된 일화를 청취하였으며, 남편(B)은 결혼 생활과 부인(A)에 대해 겉으로 조용하게 이야기하였으나, 시집에 방문하지 않고 처가 일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부인(A)에게 화가 난 모습을 트래킹 하였으며, 모든 대소사를 딸에게 의존하는 처가에 대해 불편한 마음에 컨택하면서, 수용적 태도로 청취하였음.

(2) 두 번째 방문

첫 번째 방문에 시행한 검사 결과를 부인(A), 남편(B) 씨에게 설명.

부인(A)의 주소증 및 부증상 감소를 위해 분심기음 5일분(3회/일)을 처방하고, 남편(B)에게 천왕보심단 7일분(1회/일) 처방.

부인과 남편에게 부부상담에 대해 소개하고 모두 동의를 받았음.

Table 1. Summary of Couple Therapy Visits

회기	면담 내용 요약 및 주요 개입		
	부인(A)	남편(B)	공동
초진	해울을 위한 이정변기요법 시행	트래킹, 컨택을 통해 수용적 태도로 청취 이정변기	부부의 개인력 청취 생기능 검사 및 심리평가 시행
2차	오지상승위치법(사승공)	남편의 특성 이해	검사 결과 설명
3차 부부상담1	환자는 마음이 울체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며 내내 긴장한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피곤한 모습을 보였음.	1. 리프레이밍 2. 지언고론-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상대가 보는 모습이 꼭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신경감각(neuroception) 용어로 설명)	맏딸(부인)과 차남(남편)의 일상적 특징 스토리텔링 그림그리기 과제 (현재, 이상적 가족의 경계)
4차 부부상담2	가족의 경계 확인 도서 권유	가족의 경계 확인 남편의 분노 상승 정도 확인 도서 권유	과제로 시행한 그림(가족의 정의와 경계) 확인 서로의 이해와 자아 성장을 위한 도서 각각 권유
5차 부부상담3	안전의 장소와 자존감을 높이는 법-리프레임	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 공감하여 청취	도서를 읽은 소감을 공유
6차 부부상담4	1. 아이들에 잘해주는 남편,술을 절제하는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 표현 2. 독서로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스로 금주를 결심함	도서를 읽은 소감을 공유 음주에 대한 리프레임 및 부부가 합의한 음주규칙 정함
7차	가족 서약서 작성 공감 청취 대화법에 대한 조언 비폭력 대화 방법 소개(관련 서적 및 인터넷 정보사이트 소개)	부인만 내원	허즉보기모 설명 가족서약서 작성 제시
8차 부부상담5	남편에 대해 남아있는 불안감을 스토리텔링 A씨의 성장 속도 지지 및 리프레임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60～70점. 보통과 좋음 사이로 평가	성장의 방향을 이야기하며 치료 종료 스토리텔링

부인(A)와 남편(B)가 함께 있는 면담 상황에서, 부인의 남편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완화시키고자, 남편(B)의 체성분 검사를 근거로, 남편이 자기관리를 비교적 잘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하고 있는 남편(B)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1/3정도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 권유하는 오지상승위치법 중 사승공을 사용함. 부인(A)도 남편(B)가 평상시 자기관리를 잘하고, 자신이 한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에 동의하였음.

MMPI-2 검사결과는 부인(A), 남편(B)에게 각각 설명한 후 서로에게 요약하여 설명함.

남편(B)의 MMPI-2 결과는 경조증(MA 75) 항목 상승, 관련 세부항목의 심신운동 항진, 자아팽창이 경계선 근처 상승되어있고, 자살사고 및 조현형 성격 특징이 경계선 상승이 확인되어 관련 면담을 따로 진행함. 남편(B)은 직업 및 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현재 병리성에 대하여 직접 진단을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었으며, 남편(B)의 개인적 특성으로 완화하여 설명. 다만 경조증 및 심신운동의 항진 경향은 일상 생활상에서 정보처리 및 사고, 행동의 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특징을 이야기 하고, 이에 관련 가정 내,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의 소통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함.

낮은 자기 개방과 관련된 부분은 부인(A)과 함께 남편(B)의 특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눌 때, 우리나라 40대 남성의 낮은 자기 개방성 기회의 부족과 표현능력 저하로 겉으로 드러나는 괴로움보다 사실은 더 큰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음을 간단히 언급함.

부인(A)의 체성분 분석 검사(적은 체중과 부족한 근력, 내장지방 부족)를 근거로 몸과 마음이 체력의 같은 조건임을 이야기 하고, 이를 위하여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어야 소화흡수가 되고, 근력이 생길 수 있으며, 근력이 생기면 불안과 걱정이 저절로 안정이 될 근거가 되는 심신일여의 접근에 대하여 설명함.

(3) 세 번째 방문(부부상담1)

부인(A),남편(B) 모두 두 번째 방문에 처방한 약물을 그대로 유지, 침구치료를 병행, 첫 번째 부부 면담을 진행.

지난 두 번째 방문 이후 명절이 지나갔고, 부부는 일주일간 말없이 지내왔다고 하였음. 명절에 부인(A)는 시집에 가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만 방문하였고, 남편(B)는 혼자 시가(남편의 집)에 다녀왔으며, 친정(아내의 집)에는 가지 않았다고 함. 부인(A), 남편(B) 모두 면담에서 감정적인 표현이 많았으며, 서로 몸을 반대쪽 바깥 방향으로 돌린 모습으로, 부부 각자의 주관적 욕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형식으로 많이 표현하였음. 명절 동안의 일화에 대해서 남편(B), 부인(A) 함께 혹은 따로 수용적 청취하며, 종종 공감을 표시함.

부인(A)의 경우 면담에서 환자는 마음이 울체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이며 내내 긴장한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피곤한 모습을 보였음.

남편(B)의 면담에서, 부인(A)의 음주와 관련된 걱정은 엄마와 아내(공통적인 걱정으로 리프레임)의 공통적인 걱정으로, 부인만의 특징이라기보다 많은 부인들의 유사 경향일 수도 있음을 설명(지언고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과 상대가 보는 모습이 꼭 같은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신경감각(neuroception) 용어로 설명하였음. 예를 들어, 별이라는 팩트를 보고 B씨 스스로는 동그라미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특히 부인과 같은 허약한 상태에서는 위협적인 고슴도치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함(지언고론).

부부 공동으로 부인(A)-맏딸, 남편(B)-차남의 일상적 특징에 대해 스토리텔링 하였으며, 다음 면담 과제로 현실과 이상적 가정의 경계에 대해 그림 그리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격려하였음.

(4) 네 번째 방문(부부상담2)

부인(A)에게 분심기음 5일분(3회/일)을 처방하고 침구치료 하였으며, 남편(B)에게 천왕보심단 7일분(1회/일) 처방함.

A씨는 일상생활을 그냥 하고 있고,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지는 않고 있으며, 지금의 상태가 많이 불편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잘 하고 특히 딸아이가 아빠가 없으면 안되므로 관계를 정리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가족관계 그림(Fig. 3)에서는 현재는 4인 가족의 아주 간단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상적 관계에서는 본인 가족과 친정 부모님, 형제, 동생부부와 조카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세히 썼고, 시집의 시부모님과 결혼한 남편의 형제 부부와 조카를 포함시키고, 시누가족, 시동생은 그림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는 남편(B)의 가족 그림에서 보여준, 누나부부와 조카들, 미혼 남동생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음.

남편(B)의 그림은 보여진 바와 같이 일차 본 가족, A씨의 가족으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인과 처남 조카, 본인 가족으로 친가의 형제들을 자세히 그렸으며, 그들의 특징과 관계 그 외 다수의 친적까지 포괄적으로 그려서 A씨보다 좀 더 확대된 가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본인의 가족에 치우친 관계, 현재 관계가 단절된 장인과, 음주와 폭력 과거력이 많은 처남 등에 대한 관계 정산을 그렸음. 그리고, 처가 가족들과는 A씨가 심리적 거리를 두기를 원하며, 그를 위해서 처가, 본가 모두와 별개의 도시로 이사 가서 독립적 가정을 꾸리는 것을 희망하였음. 단순한 A씨의 그림에 비하여, 생각의 내용이 많고 구체적인 남편(B)의 특성은 MMPI-2, Ma 수치 상승을 참조하여 이해되어 졌음. 처가와의 관계에서 본인도 많이 참았고 견디었으며, 더 이상은 견디고 싶지 않으며, 노력해보다 안되면, 관계 종료도 받아들일 생각임을 표현하였음. 기운 없는 상태로 자신의 불편함과 억울함, 사정을 지속 표현하는 A씨에 비하여, 남편(B)은 감정 언어 표현은 많지 않았지만, 표현보다 담겨 있는 생각이 더 많고, 그에 따른 괴로움도 더 클 것으로 생각되었음.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서로의 희망을 확인하였으며, 단순한 가족 경계 그림에서 A씨의 욕구는 현재 호소하고 있는 시집 스트레스가 핵심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또한 남편(B)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처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확인. A씨와 남편(B)의 그림 모두에서 부부관계는 동등한 것으로 보였음.

남편(B)의 그림에 나타난, A씨의 입장에 대한 이해(장녀로서 힘겨워 하고 있음)를 확장시키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자아 성장을 위하여 특정 도서를 권유. 이는 A씨, 남편(B) 모두 지적 기능이 높은 리소스를 바탕으로 추진. 다음 내원까지 읽고 올 서적으로 남편(B)에게는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더 퀘스트)", A씨에게는 "마흔,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더 퀘스트)"를 소개하였으며,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동양북스)"등의 책도 소개하였음. 남편(B)에게 소개한 책은 방어기제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A씨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A씨에게 소개한 책은 자아의 성장과 관련하여 자양 성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5) 다섯 번째 방문(부부상담3)

A씨는 식욕이 좀 생기고 운동도 좀 하였으며, 몸무게는 아직 그대로이고, 맥침세약하였음. 피로감은 다소 감소되었으며, 책을 다 읽고 내원하였음.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했고, 마음이 가는 부분에 줄을 쳐서 남편(B)에게 읽어주기도 하였다고 했음. 쉽게 읽히는 책이라고 했지만 다시 읽고 싶은 책이었으며, 읽은 책의 흥미로웠던 부분 2가지-안전의 장소와 자존감을 높이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음. 시집에서 함부로 대하고 생활에서 자꾸 작아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위축되고 전공과 무관한 다른 일을 해보는 것으로 자꾸 눈을 돌렸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나도 잘 해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음. 관련된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남편(B)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시집에 대하여 마음이 풀린 것은 아니지만, 현재 남편(B)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하였음. 작아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였고,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아도 되고, 가지고 온 모습으로 사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도 있다는 종달새 리프레임을 곁들였다.

남편(B)은 천왕보심단(qd) 복용 후 안색이 호전 중이며, 안구충혈과 가슴갑갑함도 감소 중. 일상생활은 반복되는 패턴이며, 지난 주 책을 천천히 읽고 있는데, A씨의 술에 대한 공포가 왜 이리 심한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었다고 하였음. 관련하여 처남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처남의 음주력과 사고력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A씨는 장녀로 장모님 없이 장인어른과 남동생을 돌보아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였음. 동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남편의 술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졌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음. 공감하면서 청취하였고, 부부가 서로 편안한 자리로 가는 치료가 목표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음.

(6) 여섯 번째 방문(부부상담4)

부인(A)에게 분심기음 5일분(3회/일)을 처방하고 침구치료를 시행함. 식욕이 좀 생기고 가슴답답함 감소. 맥침세약.

남편(B)에게 권유한 책을 포함하여 권장한 책을 모두 읽었으며, 독서 이후 스스로가 이상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과거 시집에서 본데없이 컸다. 할 말 다한다. 일을 키운다 등의 말로 자신을 이상하고 별난 사람 취급하여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사람들이 이상한거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음. 현재는 남편(B)가 아이들에게 잘해줘서 고마운 마음, 술에 대하여 절제를 해주어서 감사한 마음 등이 든다고 표현하였음. A씨는 신체적인 증상 호소보다는 본인이 정상이라는, 이상하지 않다는 공감을 얻고 싶었고,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상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음을 표현하였음.

남편(B)에게 천왕보심단 7일분(1회/일) 처방하였으며, 동반한 아이 보호 관련으로 침구치료 생략함.

남편(B)은 지난 면담 이후 스스로의 음주 습관과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고, A씨에게 공포스러웠을 것을 이해하였다고 했음.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반성 중 아직 어린 딸이 "아빠 술 마시지마."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며, 내원 당일 딸 앞에서 절대금주 선언을 하고 왔다고 하였음. A씨가 인정하는. 남편(B)는 한 번 결정을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지는 부부관계 회복의 좋은 리소스로 보였음. 업무가 많고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는 남편(B)의 현 상황에서 절대적 금주는 매우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국내 40대 남성들의 소통 수단으로서의 음주의 의미, 숨 쉴 곳으로의 음주(음주의 리프레임)를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A씨도 이해를 하였음. 적절하고 절제되는 음주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 이후, 부부가 서로 협의하고 동의하는 구체적 음주규칙을 정하기로 하였음. 즉, 음주의 내용과 횟수(월 2회 이내, 소주 한 병, 혹은 맥주 2병, 혼합 각 한병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보다 적게 마실 때의 상여 형식도 논의하였음. 이 약속은 최소 6개월 지속 이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음.

(7) 일곱 번째 방문

부인(A)에게 분심기음 5일분(3회/일)을 처방하고 침구치료를 시행함. 현재는 가슴답답함이 없으며 체중도 증가하였음.

아이들 육아로 A씨만 내원하였으며, 지난 면담에서 나눈 이야기로 가족서약서를 작성. A씨은 가족서약서 작성 자체로 마음이 편안해졌으며, 음주 관련으로 있었던 다른 에피소드 등에 대하여서 추가 이야기를 하였으며, 걱정과 불안하던 A씨의 마음과 그에 대해 공감해 주지 않는 시어머니(친정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에 대해 실망하고 섭섭했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고, 남편(B)에 대한 화가 그것을 더 증가시켰던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

였음. 서로 친정과 시가의 일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기다릴 것을 권유하였음.

공감 청취하면서 대화법에 관한 약간의 조언을 제안. 남성과 여성의 대화법의 특성이 있으며, 감정을 상대에게 설득하는 것은 40대 남성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으며, 비폭력대화의 방법을 소개하였음. 관련한 서적과 인터넷 정보 사이트를 소개하였음.

(8) 여덟 번째 방문(일곱 번째 방문 후 35일 경과 후) 부부상담5

남편(B)는 잘 지내고 있다고 표현하였고, 안면 홍조는 감소하였지만 잔존한 상태였고, 안구충혈은 소실되면서 매우 약한 푸른빛이 관찰되었음. 남편(B)는 현재 처가의 장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하고, 감정의 표현은 부인(A)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점수는 60~70 (100점 만점), (매우나쁨-나쁨-보통-좋음-매우 좋음) 척도에서 보통과 좋음 사이라고 이야기하였음. 표현되는 정서는 섭섭함과 쓸쓸함이 관찰되었으며, 외로운 것 같기도 하다고 하였음. 부인(A)와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부인(A)에 대하여 이해는 되지만 만족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참거나 견디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이런 느낌은 A씨에게도 감지되어 지고 있는 부분일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향후 A씨의 성장과 관련한 추가 면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음. 천왕보심단 (1회/일) 30일 처방.

부인(A)은 초진 시의 여러 가지 신체증상이 호전 소실, 체중이 전처럼 3~4 kg 증가. 주관적으로 많이 편안하지만, B씨(남편)가 또 다시 어떤 패턴의 행동을 보일 것 같아 불안한 느낌이 깔려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음. 집을 정리할 때 창고 안에 보기 싫은 것들을 우선 넣어두고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는 청소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였으며, A씨는 스스로 창고 안까지 다 정리가 되야 편안한 사람이라서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음.

현재의 속도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A씨의 속도를 지지하였을 때, A씨가 "그 말을 듣고 싶었다. 다들 지금 (남편이) 잘하고 있으니까 니가 어떻게 해야한다 라고 이야기 해서 싫었다."고 표현하였음. 스스로의 성장과 현재 자신에게 향한 에너지가 남편(B)에게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남편(B)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커져서 남편(B)에게 표현하고 싶을 때 구체적인 방법으로 남편(B)에게 직접 표현할 수도 있고, '허즉보기모(虛則補其母)'의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소개하였음. 이는 시부모와의 관계 형성을 남편(B)을 힘나게 하는 방법으로 리프레임을 시도한 것임. 현재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하면, 남편(B)에게 몸을 부비는 어린 고양이 같은 모습의 A씨, 아빠 같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남편(B)의 모습이 그려졌으며, A씨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한 발짝 걸은 것처럼, 향후 남편(B)도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남편(B)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성장의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고, 향후 직장 일정으로 추가 면담 일정을 약속하지 않고, 부부면담을 일단락 하였음.

(9) 비공식 F/U

자녀의 개학과 함께 부부가 진료 받으러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자녀의 일반진료로 남편(B)의 본원 방문 시, 현재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음.

III. 고찰 및 결론

결혼은 성인의 발달과제이며 부부는 중요한 대인관계 중 하나이다. 발달과제로서의 결혼은 가족 생활 주기의 각 단계마다 잘 적응하고, 목표도 적절하게 수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지와 이해, 교육은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기초가 된다[10].

2020년 우리나라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2010년에 비하여 9% 감소하였으나, 결혼 건수가 56% 감소한 것을 참조하면, 가족해체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는 2세의 양육과 교육을 포함한 미래의 사회문제의 바탕이 될 수 있으므로, 부부의 소통 및 가족관계 문제의 원활한 중재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1].

가족 치료(Family therapy), 부부치료(Couple therapy)는 커플 및 가족 치료, 결혼 및 가족 치료, 가족 체계 치료, 가족 상담이라고도 불린다. 가족 치료는 가족 내에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및 부부가 함께하는 정신요법의 한 분야로 가족구조를 논의하고 바꿈으로써 내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 시스템의 측면에서 변화를 보는 경향이 있고,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족 관계를 강조한다. 가족 치료의 joint Therapy는 두 명의 의사가 각각의 부부와 하나의 의사가 부부를 각각 혹은 같이 만나서 치료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한다[2].

정 등[3]은 부부치료의 최근 연구동향에서, 행동부부치료, 인지행동 부부치료, 정신역동 부부치료, 가족체계 부부치료 등 다양한 방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소개하였는데, 이들은 외현적인 행동변화 혹은 인지 정서와 같은 내적 경험을 강조하거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의 변화를 위하여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부부의 상호작용 패턴이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강[6]은 한의학적 심신일여의 신형일체적 부부치료 모델을 제시하였다. 신형일체적 부부치료 모델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에 대하여 침구한의약 등의 치료법으로 신체 기능을 회복 향상시키고, 한의정신요법으로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같이 회복하는 방법인데, 동의보감 신형편 "보양정기신(保養精氣神)"을 바탕으로 氣者神之祖, 精乃氣之子 氣者精神之根蒂 라고 하여 정신의 문제는 오장지정의 과불급에 의해 파생되고 이를 조절회복하기 위한 약물치료와 상담치료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이해는 정신의 신체화와 관련된 방어기제를 대화를 통한 기분의 전환을 유도하는 이정변기요법을 비롯하여, 지언고론요법, 자극에 순차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경자평지요법, 오행상생상극이론이 응용되는 오지상승위치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한의정신요법은 소문 이정변기론에서부터 기인된 이정변기, 지언고론, 허심합도, 이도요병, 오지상승위치법, 경자평지요법 등이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 있는데, 심신일여, 형신합일의 관점으로 몸과 마음(정신)을 모두 치료의 대상으로 중요시 하는 특징이 있다[7-9].

읽기 요법 또는 독서치료(Bibliotherapy)[11]는 책을 사용하여 정신적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이 말의 어원은 biblion(책, 문학)과 therapeia(도움이 되다, 의학적으로 돕다, 병을 고쳐주다)란 그리스어의 두 단어가 결합된 복합어로서 문학이 치료적인 특성을 가졌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 용어이다. 즉,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책을 사용하며, 책은 독자의 성격을 측정하고 적응과 성장, 정신적 건강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책과 독자의 상호작용을 독서치료라고 한다. 그리고 선택된 도서 자료에 내재된 생각이 독자의 전신적 또는 심리적 질병에 치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념이다.

화병은 우울증, 신체화 장애, 불안장애와 일부 공유점을 가진 질환으로, 가슴 답답함과 정서울체와 분노를 특징으로 한다. 풀지 못한 억울감과 분노를 쌓아두는 기간을 거쳐 상열감과 매핵기,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폭발하는 양식으로 표현되어 환자 스스로의 고통은 물론 주변인들과의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화병은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인 40~50대 여성에 상대적으로 흔하며, 원인은 가족 간의 갈등이 가장 많으며, 대상은 남편, 시부모, 형제의 순이다.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성격을 원인으로 보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심화는 우울하고 답답하여 일어나는, 이는 질투나 노여움 등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북받쳐 일어나는 울화이다. 증상은 불면증, 구건, 소화 장애, 치밀어 오름, 두통,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과 숨 막힘, 한숨 등의 신체증상이 분노, 화, 불안, 초조, 우울, 허망, 의욕의 상실 등의 정서와 함께 조합되어 표현되는데, 심화상염과 함께 심신불교의 개념이 자주 사용 된다[11,12].

화병환자 치료는 면담과 함께, 침구치료가 시행되는데, 침치료를 통하여 기를 소통시키고, 하복부나 수족의 기운이 지나치게 찬 경우 관원 기해 등의 혈자리에 강장의 의미로 뜸치료를 시행한다. 기공치료도 치료적인 측면과 예방적인 의미로 권장되어지는데, 화병의 증상이 치료된 이후에도 자기 조절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는 관리 방법으로 도움이 된다. 화병은 생활상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경적인 요소의 변화가 필요하며, 환경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대처능력 강화도 필요하다[11,12].

화병은 간기울결(肝氣鬱結),간양상항(肝陽上亢),심신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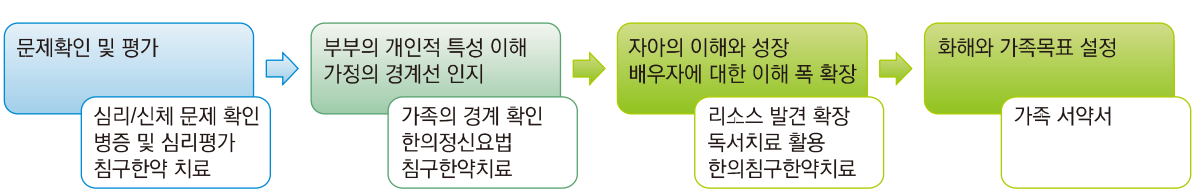


Fig. 5. The process of body-mind couple therapy.

(心腎不交),기혈양허(氣血兩虛),담울담요(膽鬱痰擾)로 변증되며, 분심기음은 흉민에, 천왕보심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수(腎水)의 감소와 함께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불교의 증상이 있을 때 처방된다[12,13].

저자는 가슴 답답함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집과 남편과의 정서적 긴장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 화병으로 진단된 부인(A)과, 보호자로 동반한 남편(B)에게 부부 상담을 권유하여, 주 1회 침구한약 및 단기간 면담 치료를 통하여 자아의 성장과 부부관계 회복의 결과를 보인 한 부부 상담의 증례를 고찰하였다.

부인은 맥과 증, 동반한 증상을 근거로 심담허겁(심비양허) 및 화병으로, 남편은 안색과 안구, 표현하는 정서 등으로 심화상염, 심신불교로 변증되었다. 이에 부인에게는 분심기음, 남편에게는 천왕보심단을 처방하였으며, 사암침법[14] 침구치료로 부인인 폐정격, 남편은 신정격을 시술하였으며, 동시에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면담을 진행하였다.

초진 시 시집 식구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시집관계의 단절과, 이로 인한 남편과의 정서적 긴장 상태, 남편의 음주력과 관련된 불안으로 가슴 답답함을 주로 호소하였던 부인은, 맥진. 체성분 검사, 인성검사 등을 통하여 당시의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고, 남편 역시 동일한 검사와 인성검사를 통하여 신체적 상황과 정서처리 속도와 관련된 개인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명절을 앞 둔 시집 방문이 주된 긴장 유발 인자였으므로,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재와 이상적인 가족의 경계를 그림으로 확인한 결과, 부부의 가족 경계에 대한 문제보다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감정이 더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시행한 자신과 상대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책을 선정하여 권하였다. 남편에게는 부인의 알코올과 관련된 인지확장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방어기제에 대한 설명이 중심이 되는 서적을 권하였다. 부인은 가족관계 그림과 인성검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의 원인을 주로 외부로 귀인하고 스스로가 새운 기준을 외부에서 만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단순한 해결 이외에도 성장의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서적을 권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부부면담에서 부인은 스스로의 모습, 그리고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지를 하면서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었다. 남편은 독서를 통하여 방어기제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통하여 부인의 확장된 공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부인 스스로도 친정 가족을 힘겨워하면서 장녀로서의 책임감으로 견디어 내고 있음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스스로의 음주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 금주 선언을 하였다. 지속 가능한 부부 중재를 위하여, 숨 쉴 곳으로의 음주로 리프레임 하고, 절제되고 절도 있는 음주를 위하여 부부 합의와 함께 가족서약서가 자연스럽게 작성되었다. 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스스로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자기조절력을 부인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부인 역시 스스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답을 찾아가는 자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책을 소개하고 부부가 각자 진행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공감하면서 잘 지지하는 것을 진행하였다.

본 증례의 부부 모두 고학력자로 지적 기능이 높아, 2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중 5번의 사승공의 오지상승위치법, 지언고론의 기법과, 독서치료에 대해 높은 순응과 빠른 효과를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부 중심의 면담에서 부인(A)의 입장에 다소 무게 중심이 기울어 진 점과, 남편(B)의 특성(사고속도가 빠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정서보다 울화 및 심화가 더 강한 것으로 관찰됨)을 바탕으로 한 중재가 부족하였고, 초진 때 시행한 검사를 치료 후 시행하지 못하였고, 부부면담의 질적 변화를 주관적 보고로 측정하였으며, 결혼생활 만족도, 부부 적응 척도 등의 부부상담 도구 등을 사용하지 않아 부부관계 회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점이 보고의 한계로 생각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부부치료의 증례보고 및 한의정신요법을 활용한 부부상담의 표준 진료양식의 개발과 그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그의 기초로, 본 임상 증례의 진행 과정을 그림으로 첨부하였다(Fig. 5).

본 증례는 신체적 증상으로 내원한 부인과 남편을 대상으로, 변증을 통한 신체치료와 한방정신요법 및 독서치료를 활용한 한의면담을 병행하는, 심신일여의 치료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부부 각자의 인간적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단기간에 신체증상과 부부관계의 개선을 보였다. 향후 더 많은 한의 심신일여의 부부면담의 보고가 축적되기를 희망하여 다소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REFERENCES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bsite: Marriage and Divorce Statistics for 202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3/index.board.

2. Min sung Gil : the 5th Modern Psychiatry. Ilzogak, 2006: 496, 714-715.
3. Gyo-Young Jeong, Hee-Cheon Shin: The Major Theoretical Models and Current Trends in Couples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7, Vol. 19 No. 1, 1-30.
4. SJ Park, JH Park : Development of a Problem Solving Brief Counseling Program for Couples in Crisis of Divorce and the Verification of its Effectiveness. The Korean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1;23(1):47-73.
5. Hyung-Won Kang, YS RUE: Approach for The Couple Therapy in Oriental Psychotherapy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3 :14(2):169-182.
6. HW Kang: A Case of Couple Therapy in Oriental medical Psychotherapy.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1; 22(3):87-100.
7. Yeoung Su Lyu, Sang Joon Min, Tae Heon Kim, Hyung Won Kang: A Review of the Traditional Concepts of Psychologic Therapy in Oriental Medicine-specially about Il-Gyeung-Byun-Qi: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1:12(1):3-10.
8. Hyung Won Kang, Hyun Ho Jang,Yeoung Su Lyu: A review of the Tranditional Concept of Psychologic Therapy in Oriental Medicine-specially about Oh-Ji-Sang-Seung Therapy.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1:12(1): 11-27.
9. Geun Woo Kim, Byong Su Gu: A study of psychotherapy by means of oriental medicine though the Giungoroen-Focusing on Ancient clinical document.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1:12(1):29-46.
10. Tae-young Park: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Hakjisa 2003:17-21, 59-61, 98-103.
11. The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f Neuropsychiatry of Oriental Schools in Nation. The Neuropsychiatry of Oriental Medicine. 3rd ed. Jipmoon-Dang. 2016:497-509.
12. Jong Woo Kim: Oriental medicine psychotherapy to heal the mind. Hakjisa 2006:38-44.
13. Jun Heo, Translated Dongui-Bogam, Bub-in Co., 2002: 121-157.
14. In-sun Lee: Interaction commentary Saam acupuncture system. Chorakdang, 2007:25-36.